

‘원맨’ 보다 ‘원팀’ … 축구사 새로 쓴 ‘흡수저 리더십’



“선수들은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 전술적으로 수행했지만, 감독인 나의 부족한 부분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걸 못했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 우승을 놓친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정정용 감독의 대회를 마친 첫소감이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한국축구에서 5년, 10년 안에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국 대표팀을 월드컵 준우승까지 이끈 ‘흡수저’ 정정용 감독의 삼촌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정 감독은 국내 축구계의 비주류다. 대구 청구중고, 경일대를 거쳐 1992년 실업 축구 이랜드 푸마의 창단 멤버로 6년간 센터백으로 뛰 그는 1997년 부상이 겹치면서 28세의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접었다.

이후 유소년 지도자로 활동했다. 14살 이하 대표팀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연령별 지도자를 거치며 2016년 20살 이하, 2017년 23살 이하 감독대행을 맡기도 했다.

2년 전 한국에서 열린 U-20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은 A대표팀 코치인 신대용 감독에게 밀렸다. 무명의 현역 시절이 극복하기 어려운 핸디캡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정 감독에게 지난 2017년 기회가 왔고 모두가 조별예선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정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다.

‘에이스’ 이강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원맨팀이 아닌 ‘원팀’을 강조한 정정용 감독의 리더십은 결국 한국 축구 사상 첫 준우승까지 이끌었다.

유럽축구에서도 스타플레이어 감독이 아닌 정정용 감독 같은 흡수저 출신 감독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올 시즌 자신만의 전술인 게겐프레싱(상대의 공격에 대항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을 앞세워 리버풀을 1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린 위르겐 클롭 감독은 2부리그 선수 출신이다. 올 시즌 첼시를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끈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도

‘U20 월드컵 준우승’ 정정용 감독

무명의 선수

이랜드 푸마서 6년간 센터백 활동
부상으로 28세에 선수생활 마감

지도자 전향

14살 이하 대표팀부터 지휘 시작
스타플레이어들에 밀려 뒤늦게 ‘빛’

삼촌 리더십

고른 기용으로 선수 자존감 배려
선수들 ‘원팀 정신’ 북돋아

‘제갈용’ 별명

다양한 공격 패턴·실점방지 훈련
선 수비 후 역습 전술 완성

이강인 패싱력 활용 훈련 결승 전인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아마추어 선수 된 대표적 흡수저 감독이다.

정정용감독은 지난 2016년 28살에 호펜하임 지휘봉을 잡아 분데스리가를 뒤흔든 울리안 나겔스만 감독과 비슷했다.

이번 대회에서 정정용 감독은 전반에는 주로 3-5-2 포메이션, 후반에는 4백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전략 구사하며 대표팀을 결승까지 이끌었다. 이번 대회에서 그가 구사하는 전술은 수비형 3-1-4-2 포

메이션에서 공격시 4백으로 변화하는 나겔스만 감독의 하이브리드 전술(여러 포지션을 넘나드는 현대 축구전술)과 매우 흡사했다.

대회 내내 유연한 전술을 앞세운 정감독은 ‘제갈용’이라 불리며 선수들은 물론 축구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정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 앞서 열린 AFC U-19를 준비할 때부터 다양한 공격패턴과 실점방지를 위한 수비연습을 해왔다. U-20 월드컵을 앞두고는 강팀과의 맞대결에 초점을 맞춰 카운터 어택에 집중했다. 또 유연하게 전술적 변화를 주면서 어린 선수들의 강점을 극대화시켰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기술보고서 겸 매거진인 ONESIDE(5월호)를 통해 정정용 감독의 ‘코칭노트’를 공개한바 있다.

정 감독은 지난 3월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 훈련과 스페인 전지훈련에서는 이번 대회 주 공격루트였던 세밀한 카운터 어택과 측면 공격 훈련에 집중했다.

상대를 우리 진영으로 끌고 온 뒤 상대 측면과 뒷공간을 노리는 카운터 어택 훈련을 진행했다.

대표팀은 선 수비 후 역습 전술을 완성하는데 집중했다. 대표팀은 이강인 등의 패싱력을 활용하기 위해 볼을 탈취한 후 한번에 킬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에 집중 코칭했다.

훈련의 결과는 한골이 절실했던 ‘우승후보’ 세네갈전에서 나왔다. 연장 전반 상대진영에서 볼을 탈취한 오세훈(아산무궁화)이 이강인에게 연결했다. 이강인은 지체없이 최전방으로 세도하는 조영욱(서울FC)의 빈 공간으로 ‘킬패스’를 찔러줬다. 조영욱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강인의 도움을 받은 조영욱의 골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다. 정 감독은 우리팀의 전술의 핵심인 원백을 통한 활발한 측면 공격에 집중했다. 왼쪽 원백 최준(연세대)은 대회 내내 활발한 오프라잉을 선보이며 1도움과 함께 4강전(에콰도르)에서는 골까지 기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부상자없이 준우승 … 숨은 영웅들 헌신 있었다

의무팀, 맞춤 치료로 근육 부상 ‘0’ …피지컬팀, 음식·훈련으로 컨디션 관리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준우승은 숨은 조력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대회 기간 김성진, 성형호, 조민우 세 명의 의무트레이너가 대표팀과 동행하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늦은 시간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2016년 대한축구협회에 입사한 김성진 의무트레이너는 지난해 러시아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여러 대회를 치렀다. 하지만 부상 열외자가 이렇게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기뻐했다.

김 트레이너는 “대표팀이 소집되기 전부터 선수들의 근육 관련 부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무팀은 이번 대표팀 소집 때 선수 개인의 몸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방법을 선택했다.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던 193cm의 장신 공격수 오세훈(아산)은 열성적인 치료 덕에 오히려 대회 기

간 상태가 호전됐다. 오세훈은 “의무트레이너 선생님들을 통해 많이 좋아졌다. 통증도 다 나왔다”고 말했다.

의무트레이너와 오성한 피지컬 코치와 호흡도 잘 맞았다.

독일 보훔대 스포츠과학대학원에서 트레이닝과 학 석사과정을, 독일 라이프치히 스포츠과학대학원에서 트레이닝과 학 박사과정을 밟은 오 코치는 체력프로그램을 맡았다.

오 코치는 우리 선수들이 약진 속에서도 늘 상대보다 많이 뛸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축구에서 요구되는 스피드, 근력, 지구력 훈련을 파주에서부터 이번 대회 첫 경기 4일 전까지도 했다”면서 “그런 효과에 선수들의 회복과 관련한 지원 스태프, 코치진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 선수들은 하프타임에는 후반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흡수가 빠른 에너지 제품을,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손상된 근육을 빨리 회복하는데 효능이 입증된 체리 주스를 먹는 등 세심하게 관리를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U-20 월드컵 4강전에서 한국의 결승 진출이 확정된 뒤 대표팀 코칭스태프들이 포옹하며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영욱·최준 득점 ‘최고의 골’ 후보에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막내형’ 이강인(발렌시아)의 도움을 받아 조영욱(서울)과 최준(연세대)이 나란히 터트린 득점 장면이 이번 대회 ‘최고의 골’(Great Goal) 후보에 포함됐다.

FIFA는 16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펼쳐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U-20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FIFA U-20 월드컵 폴란드 2019 - 골, 골, 골’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결승전을 앞두고 치러진 경기들의 득점 장면 16개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 영상에서 한국은 조영욱이 세네갈과 8강전에서 터트린 득점과 최준이 에콰도르와 4강전에서 완성한 득점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두 골은 모두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닥공으로 ‘기적’ 도전

내일 노르웨이전 이기면 승점 동률…골 득실로 16강 가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월드컵 2경기 연속 패배로 탈락의 위기에 몰린 한국 여자대표팀이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를 만나 기적의 승리로 16강 진출 마지막 희망을 타진한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대표팀은 18일 새벽 4시(한국시간) 프랑스 랭스의 스타드 오귀스트-들론에서 노르웨이와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8일 개최국 프랑스와의 대회 개막전에서 0-4로 완패하고, 12일 나이지리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0-2로 지면서 2연패했다.

2연승을 달리며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프랑스(승점 6), 각각 승점 3을 획득한 노르웨이(골 득실 +2), 나이지리아(골 득실 -1)에 이어 한국은 득점과 승점 없이 A조 최하위로 뒤처져 있다.

16강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진 건 맞지만, 이 경기에 걸려있는 건 절대 적지 않다.

한국이 노르웨이를 꺾으면 승점 3으로 노르웨이와 동률을 이룬다. 다른 A조 경기 결과에 따라 나이지리아도 승점 3으로 조별리그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골 득실에서 한 팀이라도 제쳐야 조 3위로 16강 진출의 마지막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이번 월드컵에선 각 조 1·2위가 16강에 직행하며, 3위 6개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득점 없이 6실점을 떠안으며 골 득실이 크게 뒤처진 한국으로선 극적으로 조 3위가 되더라도 골 득실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다른 조 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궁극 앞으로’만이 해법이다.

/연합뉴스